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 배포		T. 02-784-1358
배포일시	2025. 5. 26.(월)	담당	박성태 선임비서관

성명서

무조건 반대, 민생도 반대 국민의힘은 ‘청개구리 정당’ 인가

거제시가 추진한 전 시민 대상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조직본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지원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들의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임 속에서 지방정부가 고군분투하며 마련한 현실적 대안이었으며, 오직 시민의 삶과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민을 위한 절박한 노력마저 외면했다. 정치적 셈법과 중앙당 눈치보기에만 몰두한 채, 거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초생활조차 위협받는 지역경제의 경고음에 귀를 막았다. 민생을 불모로 정쟁에 몰두하는 그들의 태도는 거제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늘 반대만 일삼고 있다. 무엇이든 반대부터 하고 보는 ‘청개구리 정당’이라는 오명을 왜 스스로 자초하는가. 지금 이쯤 되면,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시민의 뜻에 반대하는 정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욱이 외국인 비하, 성희롱성, 시민 혐오 발언 등으로 세 차례나 윤리위에 회부된 양태석 의원을 국민의힘이 복당시킨 배경이 민생회복지원금 반대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정략적 정치공작이며, 거제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양태석 의원을 공천하고 복당시킨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민생보다 정쟁을, 시민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시한 국민의힘의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치인은 언행과 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 거제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내년 지방선거 계산에만 몰두할 뿐, 시민의 삶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거제시민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현실을 살리는 민생정책이다.

정쟁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치, 그것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다.

우리는 거제시의회와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하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즉각 재논의하고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하라.
- 하나. 시민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외면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라.
- 하나. 민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시민의 삶을 지킨 정치와 외면한 정치는 반드시 기억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우선, 국민 중심 정치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2025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 신정훈